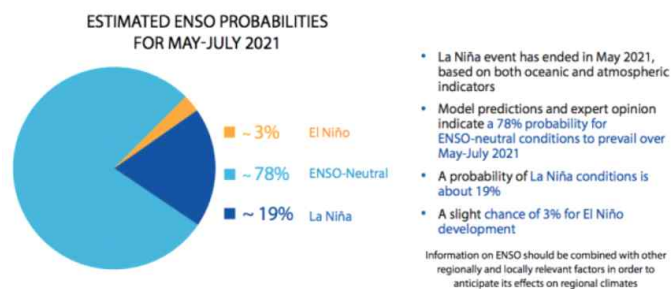


WMO, 라니냐(La Nina)가 끝났고 이후 당분간 중립상태 예상

2021. 6. 1.자 WMO 보도자료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세계기상기구(WMO)는 2020-2021년 시즌의 라니냐가 종료되었고, 앞으로 몇 달은 적도태평양이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중립상태 하에 놓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기온은 특히 북반구의 여름(6~8월)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WMO의 엘니뇨/라니냐 업데이트에 따르면 적도태평양이 중립상태일 확률은 7월까지 78%이고, 8~10월에는 55%로 낮아지고, 이후 연말까지는 불확실하다고 한다.

라니냐는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대규모로 냉각되는 현상을 일컫으며, 이는 열대 대기순환 즉 바람, 기압, 강우 등의 변화를 일으킨다. 대개 엘니뇨와는 날씨와 기후에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후 사건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즉 그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했고, 기상이변이 더 많아졌으며, 계절별 강우 패턴이 바뀌었다.

WMO 사무총장 페테리 탈라스의 말:

“라니냐는 일시적인 지구 냉각 효과를 가지며, 통상 2년차에 가장 강력합니다. 이는 라니냐 2년 차인 2021년이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게 시작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후변화가 멈춘게 아닌가 하는 잘못된 안전의식에 빠져들지 않아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지구온난화를 계속해서 끌고 갈 것입니다. 우리 WMO가 발표한 새 예측에 따르면, 2021~2025년 중 적어도 한 해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최고를 경신할 가능성이 90%

입니다. 결국 강한 엘니뇨가 있었던 2016년은 연평균기온 기록 순위가 지금까지 1위였지만 조만간 그 자리를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전지구 계절 기후 업데이트

엘니뇨와 라니냐는 지구기후시스템을 이끄는 주요 동인이긴 하지만 이들만 있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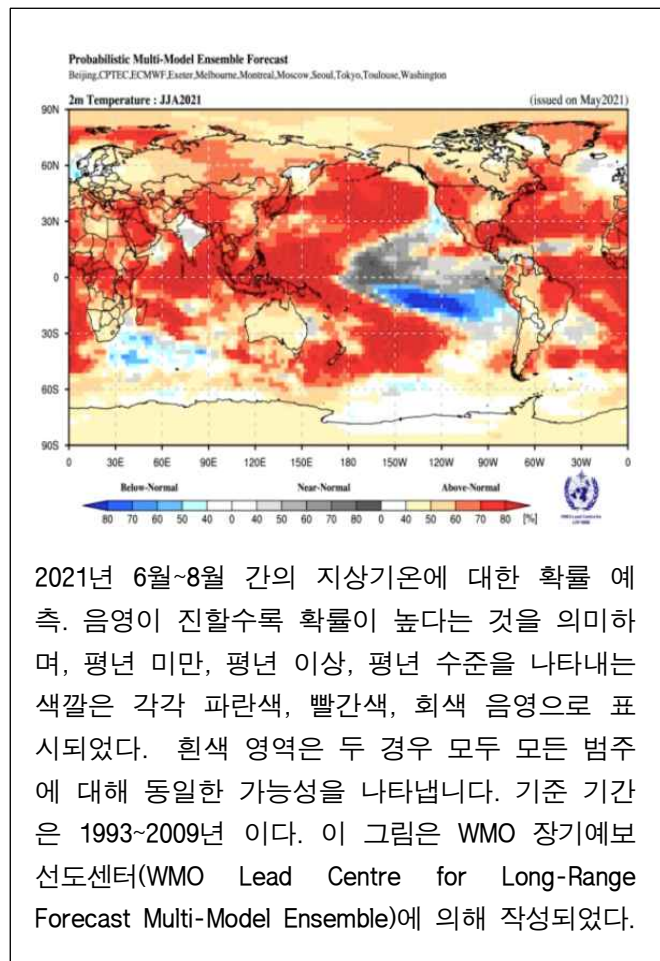
발간한 지 제법 된 'ENSO 업데이트' 외에도, WMO는 이제 북대서양진동, 북극진동, 인도양 쌍극자 등 지구기후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다른 모든 기후 동인들의 영향에 관해 통합 정리한 '전지구계절기후업데이트(Global Seasonal Climate Update: GSCU)'를 발행한다.

전지구계절기후업데이트는 WMO 전지구장기예측생산센터들의 예측에 기초하며 정부, 유엔, 의사결정자, 기후민감 부문의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인명과 생계 보호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온 Temperatures

라니냐가 종료된 이후 지구가 데워지면 넓은 해역에 걸쳐 지구 전체 평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게 될텐데, 이는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육지의 대기 온도가 특히 거의 북반구 전역, 그중에서도 북미 중서부와 아시아 대륙 북부 끝, 중앙아시아 일부, 극동아시아, 아라비아반도, 카리브해 북부 등지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아프리카의 남부 연안, 아프리카 중부와 동부, 남아메리카 동부 전역과 이들을 잇는 해양도 6월부터 8월까지 평년 기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평년 기온을 웃도는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몇 곳 있는데, GSCU에 따르면, 카리브해 남부, 유럽 북서부,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북부 지역 등이 그런 곳이다.

강수 Precipitation

2021년 6~8월의 예상 강수 패턴을 보면 라니냐나 엘니뇨 이벤트가 이 기간에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적도 선상의 태평양 해역 대부분은 평년 수준의 강수가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

평년 미만의 강수 확률이 높은 곳은 카리브해 지역, 남미의 적도 이남의 상당 지역, 지중해와 남동 유럽의 많은 지역, 북미 중부와 서부의 일부, 중앙 아프리카의 일부, 그리고 아프리카의 동부 연안 지역 등이다.

남미의 북부와 인도 아대륙의 북부 지역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